

“평등한 결사 열린 공동체…순례공덕 불교중흥으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대표주자 7人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10여명씩 총 7개 조로 편성됐다. 4개 조는 비구 스님, 나머지 3개 조는 비구니 스님과 남녀 재가불자로 꾸러졌다. 각각의 조는 맨 앞에 조장을 선두로 일상불란한 행선으로 진행됐다. 각 조 조장들은 매일 저녁 대중공사를 통해 하루를 점검하고 다음날을 계획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장은 조원들이 무탈하게 순례를 회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 남성재가불자로 구성된 제7조 조장 정총래 동국대 이사는 “앞에 선 도반이 나아가니 뒤를 따랐고, 뒤에서 따라오는 도반이 있어 힘들더라도 한 발 땀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500여 km 대장정을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올곧게 정진한 일곱명의 조장들을 만났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1조 조장이자 순례팀장을 맡은 서울 호암사 주지 **우봉스님**(중앙총회의원)은 10월7일 대구 동화사를 출발해 511km를 걸어오면서, 자비순례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우리가 시작한 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죽고 싶다는 사람들,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고행에 가까운 행선을 하며 사람들에게 자기 슬픔에 간여하지 말고 스님들 불자들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호암사 신도들은 주지 스님이 원력을 갖고 걷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스님은 “신문과 TV, 유튜브로 전해지는 만행결사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은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순례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교적 인과관계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물리적 자극과 물리적 반응으로 이뤄진다면 종교적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열정과 헌신에 따라 영향력이 커진다고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스님은 “만행결사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마도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각자 맡은 소임과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21일이란 시간을 할애해 하루에 30km에 가까운 거리를 걷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순례를 끝내고 사찰로 돌아가면 스님은 신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만 공력이나 법력으로 만행결사처럼 관심과 참여율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엔 미약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달라질 것”이라며 움직이는 불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먹고 자고 걷는 것이 평등한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격식이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선하는 시간이었다. 오롯이 자기와의 씨움이었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었다. 발바닥, 무릎 통증을 참고, 대중과 함께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지역 소임을 맡아 동참대중을 꾸리고, 순례단장이자 2조 조장으로 순례 기간 내내 바쁘게 뛰어다니는 **원명스님**(계사간 부주지)이 만행결사 회향을 이들 조장과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만행결사에 동참한 사부대중 한명 한명 큰 가치를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걸으며 몸의 가치를 알았을 것이고, 마음의 가치, 도반의 가치를 배우면서 자기 공부 많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순례하면서 스님은 ‘위의’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순례 대중인 스님이 봐도 동화사에서 대가사를 수하고 행선하는 스님들 모습은 장관이었다. 여법하게 정진하는 스님들을 보며 교구본사나 말사 스님과 신도들도 신심을 내어 공양을 올렸다. “대가사를 수하고 하루 7시간 가까이 행선하는 게 스님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불평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없었다”며 “조계종다운, 스님다운 모습을 국민과 불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위의를 갖춘 스님들과 함께 걷는 불자들이 위해 공양정이 불민 듯 들어온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선방에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안할 정도로 공양을 많이 받았다”며 “팔공총림 동화사 스님과 신도들이 10일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스님은 전했다.

스님은 만행결사에 동참한 대중이 뜻을 모으면 한국불교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했다. “사부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교중흥을 위해 마음을 내면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 3조 조장을 맡았던 중앙총회 부의장 **법원스님**은 스님은 만행결사 자비순례의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했다. 첫째는 ‘평등공동체’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사부대중이 평등하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스님은 “스님들이 순례를 가면 보통 어른 스님들을 예우하기 마련인데 이곳에서만큼은 사부대중이 먹고 자고 걷는 모든 것이 평등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순례 중에 모든 대중은 법남에 관계없이 오는 순서대로 줄을 서서 공양물을 받아 길에서 밥을 먹었다. 햇백부토 도시락 간식 음료 등등 각종 공양물도 평등하게 나눴다.



유승스님

“고행,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서 대중에 자비보살행 실천 원력”

두 번째는 ‘열린 수행공동체’라는 점이다. 법원스님은 “대표적인 수행공동체인 선원은 닫힌 구조로, 재가불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자비순례는 단 하루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순례 소식을 듣고 신심을 내 찾아온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순례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많은 동참자들이 찾아왔다. 순례단이 거쳐 간 교구본사 및 말사 스님과 신도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이나 기관장들이 함께 걸었다.

세 번째로 스님은 만행결사가 ‘삼륜정정 수행공동체’라고 했다. 삼륜정정(三輪淨淨)은 보시를 하는 사람과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함을 가리킨다.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며 대구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500km를 걷는 결사 대중을 찬탄하며 보시하는 스님과 신도들, 그들이 올린 공양물, 공양을 받을 때마다 시에에 감사하며 축원하고 평등하게 나누는 결사 대중 모두가 정



우봉스님

“만행결사, 신도들 깊은 감동 움직이는 불교 살아있는 불교 사부대중공동체 힘 보태겠다”

정하기에 삼륜이 청정한 수행공동체라고 법원스님은 설명했다.

또 스님은 순례단 외에 만행결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호해준 지원단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했다. “공양팀, 운영팀, 자원봉사팀, 의료팀 등 지원해주는 분들의 숨은 노력이 없었더라면 원만하게 순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분들이 모두 주인공이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스님**은 결사에 동참한 스님들이 대가사를 수하고 행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주인공이기



유아정 씨

“대중 살피는 회주 스님 인상적 뼈아픈 통증 고통 감내하면서도 순례의지 꺾지 않는 대중들 감동”

도 하다. 스님은 “지난 여름 공주순례 당시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행선하다 보니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가사를 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가사를 수하면 스님들 스스로 자신을 정돈하게 되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행선이 동중정(動中靜)이라면 가사를 수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고 묵언하며 행선한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위의를 갖추고 정진하면서 스님들은 지켜보는 사람들을 감화시켰다. 지나가는 스님에게 합장 인사하는 불자들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소박하게 공양물을 올리기도 했다. 순례 소식을 듣고 이른 새벽 거리로 나와 인사하는 불자도 있었다. 만행결사 정진이 더욱 힘을 얻는 순간이었다.

법원스님은 행선하며 초심에 대해 생각했다. 출가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심을 잊고 있었는데, 만행결사서 평등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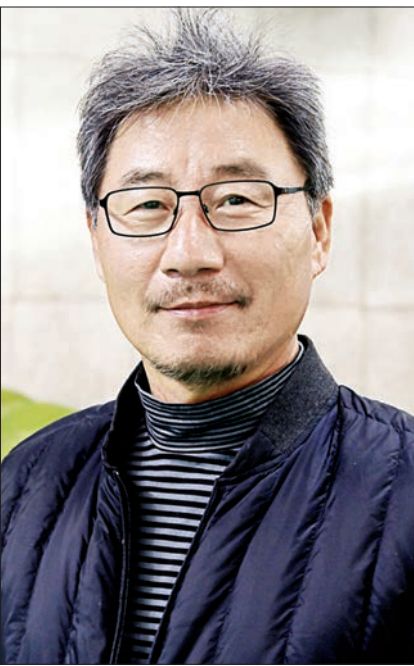


원명스님

“함께하는 가치 소중히 여겨… 자비순례 결사대중 뜻 모으면 한국불교 바꿀 수 있다 확신”

양을 실천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놔다고 한다. “자비순례를 하면서 만행결사 사부대중은 승속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 먹고 자고 걸었다. 회주 자승스님부터 줄을 서서 공양을 받아 평등을 실천하면서 저 또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출가자라는 특권의식을 내려놓았다.”

스님은 만행결사의 핵심을 ‘평등’이라고 했다. 길 위에서 모든 대중은 평등하다. 누가 대신 걸여줄 수 없기 때문에 두 다리도 걸어야 했고, 신발 속 발 또한 평등했다. 스님이라고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재가자와 마찬가지로 걸으면 발에



정총래 씨

“혼자서는 이를 수 없는 여정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천리길… 돌도없는 도반 된 7조에 감사”

물집이 잡히고, 근육통 때문에 아팠다. 승재가가 차별 없이 수행하며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법원스님은 만행결사가 특별한 수행공동체라는 것을 절감했다. 수행공동체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막결사가 비구 아홉 스님이었다면, 이번 만행결사는 비구니 아홉 스님이다”라는 말씀을 회주 스님께서 해주셨다. 온전히 순례한 9명 비구니 스님을 위해 회주 스님이 붙여준 별칭이다. 세남이나 법남은 차이가 있어도, 불교중흥 원력을 가슴에 품고 함께 하니 서로 뜻도 잘 맞았다. 마음 모아준 조원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된 5조 조장을 맡아 모범적인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유승스님**(전 총무원 재무부장)은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길 위에서 숙식하며 수십km에 달하는 거리를 매일 걷는 고난의 행군이었는데도 스님은 “마음으로 불편한 것들



법원스님

“이번 자비순례 특별한 의미 평등공동체·열린공동체 구현 삼륜정정 수행공동체까지”

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와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밝혔다. 긴 순례 여정에서 스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감했다. 스님은 “텐트 생활은 이제껏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움과 깨달음을 주었다”며 “작은 순례로 하나에도 큰 행복감을 느꼈다”고 떠올렸다. 이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맞닿았다. 스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씻지 않은 각오로 순례에 임했다는 스님은 “사람의 욕구는 조그마한 씨앗에서 시작하는데 생각을 일으키면 풍선처럼 커진다”며 “인도 순례를 발원한다면 내 몸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챙길 것이 아니라, 마음 준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발로 걸으며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다.

유승스님은 “불교중흥이라는 씨앗이 발아가 되기 위해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며 주저하게 된다”며 “오늘 하루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활하겠다, 대중을 위한 자비보살행에 앞장서겠다고 마음먹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보면 불교중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열반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위대한 스승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겠다는 원력으로 인도 만행결사를 발원한 첫 번째가 있다. 그 주인공은 서울 구룡사 신도 **유아정** 씨. 유 씨는 공주 예비순례를 순조롭게 완주하고, 이번 상월선원 자비순례에 이름을 올렸다.

병원서 간호팀장으로 있는 유 씨는 우바이들로 구성된 6조 조장을 맡아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자전거 길과 일반 도로가 섞인 순례에 조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순례를 수를 걸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조원들을 아우르며, 때로는 선두에서 전체 순례 행렬을 행하는 역할도 했다. 대중생활에 적응하느라 초반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얼마 전 입적한 구룡사 주지 각성스님을 떠올렸다. ‘인도 만행결사에 꼭 함께하자’고 생전에 스님께 했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이번 순례길에 오른 유 씨는 스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유 씨는 “미흡하지만 잘 따라준 조원 보살님들에게 고맙다”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함께 회향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미소지었다. 이어 “다양한 대중과 함께 걸으며 순례한 시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구룡사에서 불교와의 인연을 시작한 유 씨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생활 속에서 신행활동을 실천하는 불자로 성장했다.



법원스님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출가자란 특권의식 내려놓고 모두가 평등하게 정진한 순간”

이번 국난극복 불교중흥 자비순례는 유 씨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 유 씨는 “항상 쉬는 시간에 재가불자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꼼꼼하게 챙겨준 회주 스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순례 의지를 꺾지 않은 스님들 모습에 감동 받았다”며 “일상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신행 활동하는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바세 대표인 **정총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는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탐진치 삼독심 중 진심을 버리자는 원력을 세웠다고 한다. “정진하는 21일 동안은 성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일만큼은 하지 말고 사부대중과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고 왔다”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짜증내지 않고, 대중에게 화내지 않은 채 순례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갈 길은 아득하고 발은 점점 아파왔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했다. 재가불자를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대오를 이탈할 수 없게 했다. 발가락에 잡힌 물집이 염증으로 번지면서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아팠다. 통증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걸을수록 아팠지만 또 잡고 걸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발도 감동했는지 어느 순간 염증이 사라지고 굳은 살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도반의 고마움도 느꼈다. 처음엔 서막하다가 상처를 걱정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걸어온 길이 1000리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돌도 없는 도반이 됐다.”

순례 내내 정총래 이사는 삼라만상 모든 인연이 자신을 견게 해준다는 생각을 했다. 6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누구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서 지금까지 511km를 걸으며, 길 위에서 응원하는 박수를 보내는 불자, 간식을 들고 찾아오는 불자들이 있어 힘을 얻었다. 무엇보다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어 그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었다. 앞에 선 도반이 나아가니 뒤를 따랐고, 뒤에서 따라오는 도반이 있어 힘들더라도 한발 땀 수 있었다. “혼자서는 이를 수 없는 여정이었었는데 모든 인연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길을 걸으며 정 이사는 한국불교 현주소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두 차례 대중공사에서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이 동참하고 있는 상월결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위기를 해결할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지금,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신도조직과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 이사는 “해법을 찾아낼 때까지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현경·홍다영 기자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